

10월 원/달러 환율 하락기조 유지 전망

삼성선물, 10월 환율시장 동향 및 전망 발표

연초부터 계속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위안화 절상 압력으로 원/달러 환율도 하락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환율 안정을 위한 외환당국의 개입이 하반기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아 환율 하락에 따른 산업계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삼성선물에서 발표한 2010년 10월 환율 동향 및 전망 주요 내용을 정리·요약한 것이다. (편집자주)

▶ 9월 외환시장 박스권 하향 돌파

9월초 1200원 시도가 무산된 환율은 주요국 지표 호조 속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가 나타나며 빠르게 박스권 하단인 1170원을 하향 돌파, 당국의 지속된 개입으로 하락 속도가 주춤했으나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 지속과 위안화 강세, 미국의 양적완화 확대 기대대로 전 저점(1155.70원) 하향 돌파하며 전월 말 대비 51.80원 하락한 1146.30원에 마감하였다.

▶ 9월 글로벌 외환시장, 달러화 약세 재개

미달러는 미, 중, 일 등의 지표 호조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와 유로존 국가들의 국제입찰 호조 등으로 월 초 하락세 보인 후 유로존 은행권 부실 우려가 부각되며 급반등, 월 중반 이후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 지속과 미국의 양적완화 확대 기대로 달러화 하락 압력이 강해졌다. 유로는 월 초 유로존 국가들의 지표와 국제입찰 호조로 지지력을 이어갔으나 WSJ의 유로존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의혹 보도로 1.264달러까지 저점을 낮췄다.

▶ 2010년, 예측하기 힘든 달러화의 방향

올 들어 달러화의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졌다. 그간 신용시장 동향이 금융시장 전반의 주요 테마였다면, 올 들어서는 각국의 경제와 재정 상황

등 통화별로 각기 다른 이슈가 환시를 움직이고 있다. 달러 인덱스는 6월부터의 가파른 하락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대비 2% 가량 상승해 있는 상황이다.

▶ 2009년 달러약세, 금융시장 회복 기대

9월 FOMC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현재 장기적으로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달성을 위해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수준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FRB의 양적완화 확대에 대한 기대를 키웠고 달러화는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냈다. 미 증시는 5월 이후의 박스권을 상향 돌파했고, 구리 값도 연중 최고치 경신 시도에 나서고 있다. 이는 2009년 3월 미국의 국제매입 프로그램 발표 이후의 달러 약세와 금융시장 랠리 재현의 기대를 키우고 있다.

▶ 추가 양적완화 기대 속 달러화 약세 전망

CNBC는 최근 연준이 11월부터 6개월여에 걸쳐 5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에 나설 것이라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연준의 추가 양적완화는 당분간 달러화에 강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9년과 같은 달러화의 초약세와 금융시장의 랠리가 재현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달러화 자체의 레벨이 당시보다 낮은 상황이



며, 신용시장의 정상화가 상당 부분 진행돼 추가적인 개선이 큰 폭으로 진행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 유로화의 추가상승도 불확실

달러화 약세에 따른 유로화의 추가 상승에도 불확실성이 크다. 금융위기 동안 유로화가 1.50달러 수준을 기록한 것은 대체 통화로서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었지만, 유로존의 재정 부실 우려로 이에 대한 기대도 약화된 상황이고, 고평가된 유로화가 유로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유로화의 추가상승을 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글로벌 '환율전쟁' 환시의 화두

미국은 추가 양적완화를 통해 달러화 약세를 유도함과 동시에 중국에 위안화 절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최근 2004년 3월 이후 처음으로 달러 매수 개입을 단행했다.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이들 국가들 뿐 아니라 세계는 자국 통화 약세를 통해 경기 부양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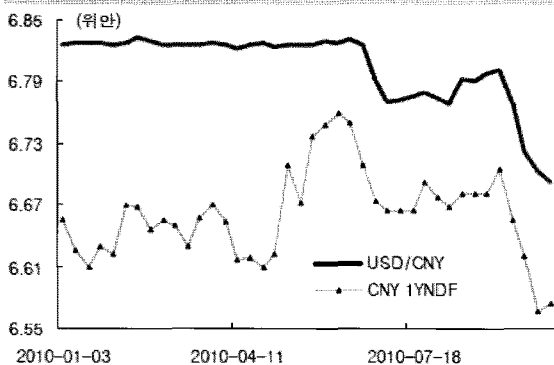
▶ 중-미 화해무드 속 위안화 절상 용인

중국과 미국은 올해 남중국해 갈등과 천안함 사건 등으로 갈등 관계를 나타냈으나 최근 양국 주요 인사들의 상호 방문 등 화해 분위기를 조성해오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도 이러한 미국의 정치적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며 9월 연일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위안화는 9월 한달 동안 미달러에 1.5% 이상 절상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미달러의 약세 흐름도 위안화 강세에 일조한 면도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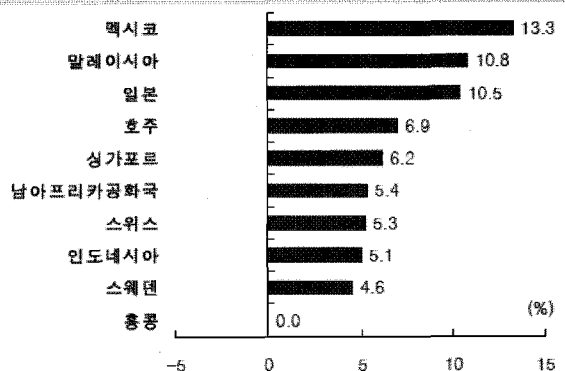
▶ 위안화 강세 흐름 속 아시아 통화 강세

중국의 달러/위안 환율의 하락 용인은 완만하게나마 적어도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전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위안화의 강세흐름은 이머징 아시아 국가들의 동반 강세를 유인하고 있다. 물론 이머징 아시아 국가들의 빠른 경기 회복세와 건전한 재정 상황이 이들 통화들을 지지해 주고 있기도 하다. 올해 주요 통화의 달러화 대비 절상률 상위 10위에 4개의 이머징 아시아 통화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주요 해외 IB들은 여전히 아시아 통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과 선물환(1Y)



주요 통화 연간 상승률 순위



자료 : Reuters

자료 : Bloomberg

▶ 위안화 절상에 당국 개입은 자제 전망

우리 외환당국은 이러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위안화 절상 압박과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10월 공격적인 화시 개입은 자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처럼 공기업의 달러 매수 유도 등 간접적인 형태의 개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일본의환당국 환시 개입 단행

9월 15일 일본 외환당국은 2004년 3월 이후 처음으로 환시 개입을 단행했다. 달러/엔 환율이 82.25엔까지 저점을 낮추면서 역사적 저점(79.75엔)테스트가 이어짐에 따라 시장의 심리 진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번 개입은 15일에만 2조엔 정도의 규모로 일간 기준으로 1998년 4월 이후 최대이며, 개입 기관은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들의 협조 없이 일본 내 상업은행과 금융기관들에 의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입 방식은 확대된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는 태화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당분간 일본 정부의 공격적 개입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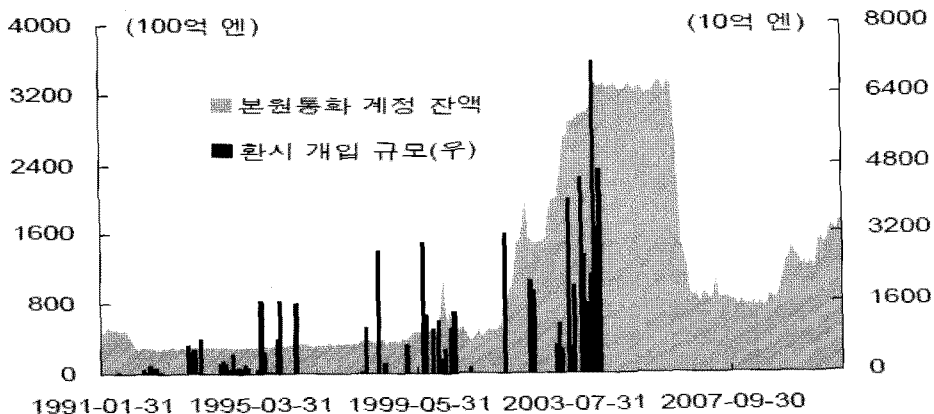
현재 엔화 강세와 디플레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이러한 태화개입은 글로벌 추가 완화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과거 실패 경험에도 불구하고 일본 당국의 환시 개입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당분간은 시장에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달러/엔 급락시 공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국제 공조가 없는 상황 하에서 달러/엔의 상승을 유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레벨 끌어 올리기 보다는 지지력을 제공해주는 정도의 역할이 기대된다.

▶ 10월 글로벌 환시, 미달러 추가 하락 압력

10월은 11월 2일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정책적 이슈들이 글로벌 환시의 주요 테마로 작용할 듯 보인다. 미국 민주당의 선거 승리를 위한 경기에 대한 정책적 부양 의지가 지속되며 미달러는 추가 하락 압력이 예상된다. 한편 중국의 경우도 10월 15일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에서의 환율 조작국 발표와 11월 11, 12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달러/위안의 하락 용인이 지속되며 아시아 통화들에 강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환시 개입 규모와 본원통화 경상계정 잔액



자료 : Bloomberg

▶ 유로/달러 1.375달러 저항 예상

유로/달러는 달러 약세 속 추가 상승이 예상되나 9월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아일랜드 구제금융 우려와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재정 부문 우려 부가 가능성등이 추가 상승 속도를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한 유로의 유로존 경제의 감내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유로/달러의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달러/엔 약세 속 하락압력 예상

달러/엔은 달러 약세 속 하락 압력이 예상되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자산 선호 분위기와 달러/엔 급락 시 예상되는 일본 외환 당국의 강력한 개입이 하락을 제한하며 80엔 대 초중반의 좁은 박스권 흐름이 예상된다.

▶ 외국인의 한국 주식 매입 재개

미국의 양적완화 재개 시사로 외국인의 한국 주식 매입도 재개되었다. 5월 유로존 재정위기로 대거 차익실현에 나섰던 외국인은 이후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다 9월들어 3.5조원이 넘는 주식을 순

매수하였다. 올 들어 꾸준히 한국채권을 샀던 외국인은 9월들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채권 보유 잔고는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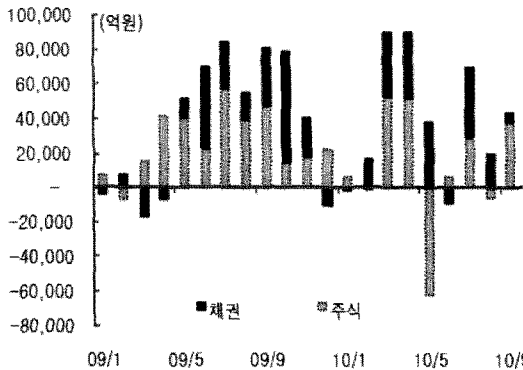
▶ 외국인의 원화채권 '러브콜' 지속 전망

국내채권에 대한 외국인의 '러브콜'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적 완화 기조 장기화 속에 선진국 대비 아시아 등 견실한 신흥국 자산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채권시장은 상대적으로 고금리, 안정적 재정여건 및 원화 저평가 인식으로 외국인의 선호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다.

▶ 10월 환율 하락 기조 유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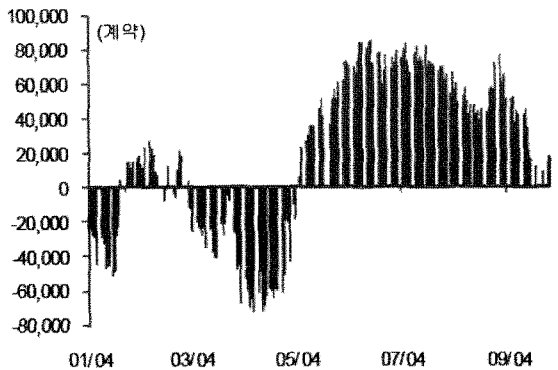
10월 달러/원 환율은 9월부터 부각되고 있는 위험자산 선호와 아시아통화에 대한 절상압력 영향이 지속되면서 하락 기조를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위안화 절상 압력을 등에 업고 외국인이 원화 매수에 자신감을 회복한 데다 10,11월 주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외환당국의 개입입지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 1140원, 1120원, 1100원 등 주요 지지선 하향 돌파 시도가 지속될 전망이다.

외국인 주식 및 채권 순매수 추이



자료 : 금감원, Infomax

달러선물 외국인 순매수 추이(1월부터 누적)



자료 : 삼성선물

2010년 한국 수출 사상최초로 세계 8강 진입 전망

무역협회, 우리나라 수출 8강 진입에 따른 시사점 발표

WTO 국별 수출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순위가 7위로 상승했을 뿐 아니라 주요 수출국가 중 한국과 중국만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무역협회에서 최근 발행한 '2010년 2010년 우리나라 수출 8강 진입, 그 가능성과 시사점' 발표자료를 정리·요약한 것이다. (편집자주)

□ 2010년 상반기 세계 수출 현황

해오다가 2009년 최초로 9위로 올라섰고 2010년 상반기 또다시 7위로 상승하였다.

▶ 우리나라 상반기 수출순위 7위로 상승

WTO 국별 수출통계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순위는 7위로 2009년 3단계 상승한 9위를 차지한 이후 또다시 두 단계 상승하였다.

우리나라 수출순위는 지난 1980년 19위에서 86년 15위, 90년 12위를 차지한 이후 10위권을 유지

해오다가 2009년 최초로 9위로 올라섰고 2010년 상반기 또다시 7위로 상승하였다.

금년 우리나라가 추월한 국가는 이탈리아와 벨기에이며, 이들 국가들과의 수출 금액 차이는 상반기 현재 각각 75억달러, 202억 달러로 그 격차가 근소하였다.

▶ 한국과 중국만이 금융위기 이전수준 회복

2010년 상반기 기준으로 세계 주요 수출국 중 한국과 중국만이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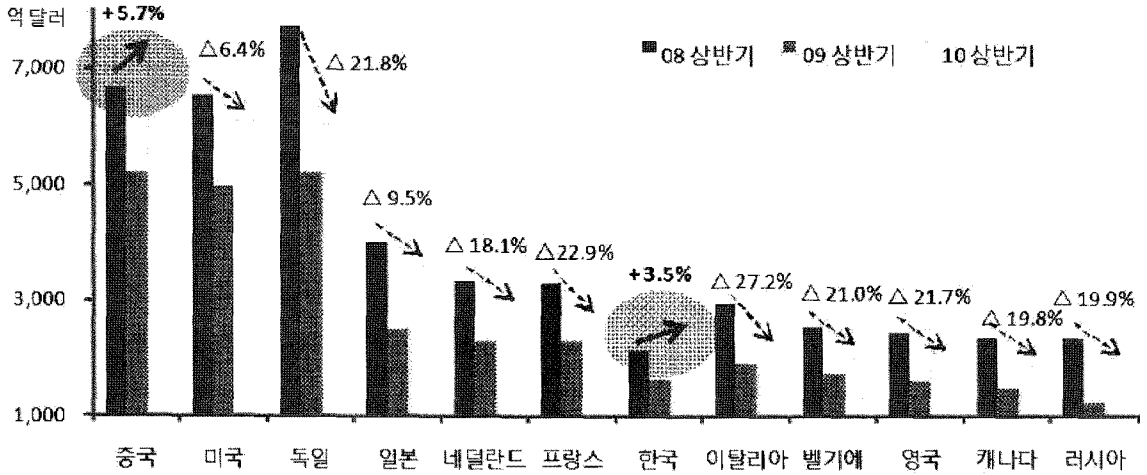
〈 세계 수출순위 추이 〉

(단위 : 억달러)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상반기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1	독일	13,212	독일	14,462	중국	12,015	중국	7,051
2	중국	12,201	중국	14,037	독일	11,209	미국	6,117
3	미국	11,482	미국	12,874	미국	10,569	독일	6,051
4	일본	7,143	일본	7,820	일본	5,808	일본	3,623
5	프랑스	5,519	네덜란드	6,379	네덜란드	4,986	네덜란드	2,742
6	네덜란드	5,508	프랑스	6,012	프랑스	4,750	프랑스	2,559
7	이탈리아	4,999	이탈리아	5,380	이탈리아	4,047	한국(7)	2,213
8	영국	4,391	벨기에	4,718	벨기에	3,698	이탈리아	2,138
9	벨기에	4,321	러시아	4,716	한국(9)	3,635	벨기에	2,013
10	캐나다	4,207	영국	4,597	영국	3,507	영국	1,914
11	한국(11)	3,715	캐나다	4,565	홍콩	3,297	캐나다	1,899
12	러시아	3,544	한국(12)	4,220	캐나다	3,156	러시아	1,898

자료 : WTO

〈 주요 수출국 2010년 상반기 수출실적 비교 〉



자료 : WTO

출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별로 2010년 상반기 수출금액을 2008년 상반기 실적과 비교하면, 한국(+3.5%)과 중국(+5.7%)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아직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재정위기까지 겹쳤던 유럽지역 주요 국가들

의 수출은 2008년 상반기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 우리나라 세계 수출순위 상승 요인

▶ 반도체 및 LCD등 빠른 수요회복

2009년 말부터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기

〈 주요 수출품목 비교 〉

한국			이탈리아			벨기에		
품목(HS4)	증가율	비중	품목(HS4)	증가율	비중	품목(HS4)	증가율	비중
총 수출	33.4	100	총 수출	11.7	100	총 수출	15.7	100
선박 (8901)	3.1	9.0	석유제품 (2710)	67.2	3.8	외약품 (3004)	3.9	9.5
전자집적회로 (8542)	78.9	8.0	의약품 (3004)	13.9	3.2	승용차 (8703)	3.5	5.7
승용차 (8703)	59.4	6.8	자동차 부품 (8708)	31.5	2.9	석유제품 (2710)	79.6	5.4
LCD (9013)	44.5	6.6	승용차 (8703)	4.2	1.9	다이아몬드 (7102)	71.4	3.9
석유제품 (2710)	42.2	6.1	신발 (6403)	1.6	0.0	화학제품 (2933)	13.1	2.6

자료 : Kita.net

*한국은 2010. 1~7월 기준, 이탈리아, 벨기에는 2010. 1~5월 기준

<주요 수출대상국 비교>

(단위 : 전년동기대비 %)

한국			이탈리아			벨기에		
국가	증가율	비중	국가	증가율	비중	국가	증가율	비중
총 수출	33.4	100	총 수출	11.7	100	총 수출	15.7	100
중국	45.3	25.1	독일	13.2	13.1	독일	5.9	18.5
미국	33.2	10.7	프랑스	143.	12.0	프랑스	3.2	16.7
일본	31.6	5.8	스페인	21.7	6.0	네덜란드	14.1	11.9
홍콩	39.0	5.5	미국	9.0	5.8	영국	19.3	7.0
싱가포르	17.7	3.3	영국	18.9	5.3	미국	32.8	6.0
대만	69.5	3.0	스위스	8.3	4.6	이탈리아	12.6	4.6
독일	48.0	2.5	벨기에	5.5	2.7	스페인	10.0	3.1
인도	42.1	2.4	네덜란드	18.1	2.6	인도	79.7	2.2
멕시코	36.1	2.0	폴란드	2.9	2.5	룩셈부르크	16.4	1.8
베트남	35.2	2.0	중국	21.0	2.5	중국	43.8	1.8

자료 : Kita.net

*한국은 2010. 1~7월 기준, 이탈리아, 벨기에는 2010. 1~5월 기준

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IT제품의 수요가 확대되고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우리 수출 호조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나라는 이탈리아, 벨기에 등 수출 경쟁국에 비해 수출상품 구성상 반도체, LCD등 IT제품의 수출 비중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벨기에의 주요 수출품목의 하나인 석유제품(HS 2710)은 유가 상승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확대된 반면, 승용차(HS8703)의 경우 우리 수출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탈리아와 벨기에의 수출 증가율은 5% 미만이었다.

▶ 신흥개도국으로의 수출 지역 다변화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수요가 빠르게 회복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및 유럽지역 뿐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상반기 기준 우리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5%를 초과하였으며, 10대 수출대상국 중 7개국이 아시아권에 속해있다.

반면, 이탈리아 및 벨기에 등 유럽지역 국가들의 수출은 미국을 제외하고 역내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 2010년 우리나라 수출순위 전망

▶ 2010년 세계 수출 7위 유지는 불투명

2010년 연말까지 우리나라가 세계 수출순위 7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이탈리아 및 벨기에와의 경쟁에 달려있다. 삼국간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수는 첫째, 각국의 수출주력시장 경기의 향방, 둘째,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IT제품의 수요 및 수출가격 변동, 셋째, 환율 등 수출환경 변화를 꼽을 수 있다.

▶ 2010년 수출 8강 진입은 가능할 전망

하반기 미국, 유럽, 중국 등 대경제권 중심의 세계경기 변화에 따라 수출순위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나 2010년 사상 최초로 수출 8강 진입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의 수출금액 차이가 75억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순위를 가늠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우리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벨기에까지 우리를 추월하지는 못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세가지 변수가 우리 수출순위 좌우 예상

▶ 각국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동향

연말까지 중국의 고성장, 미국 경제회복의 둔화, 유럽지역의 더딘 회복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순위 7위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5대 수출국 중 4개국이 아시아 국가이며, 이 중 중국의 2010년 경제성장률은 10% 이상의 고성장, 홍콩, 싱가포르도 5% 이상 성장할 것

로 전망된다. 반면, 이탈리아 및 벨기에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유럽 국가이며, 이들 국가들의 2010년 경제성장률은 모두 2% 이하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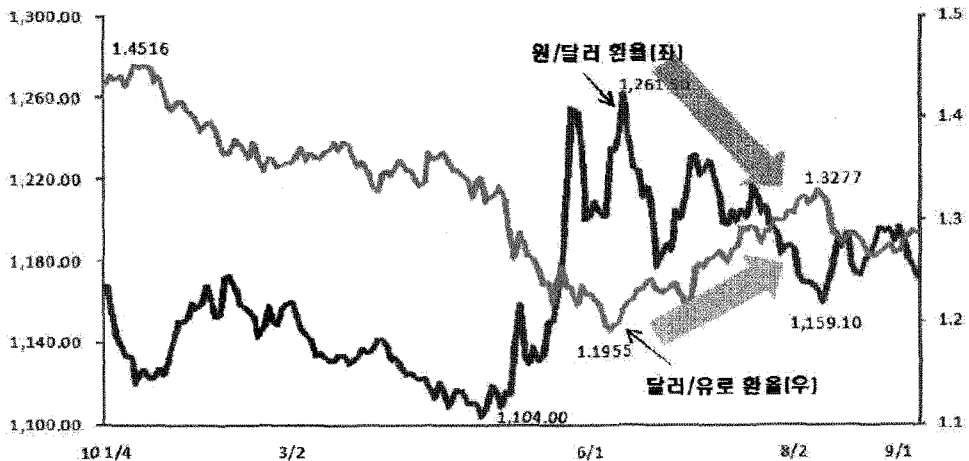
단, 상반기에 남유럽 국가 재정위기로 회복이 부진했던 유럽경제가 하반기에 서서히 활력을 되찾게 될 경우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를 다시 추월할 가능성도 높다.

▶ IT제품의 수요 및 수출가격 변화

수출 비중이 큰 IT제품에 대한 수요 및 수출가격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하반기 우리나라 전체 수출 실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도체의 경우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가 출시됨에 따라 수요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나 동시에 공급물량 증가로 하반기에 가격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LCD도 중국이 가전보조금 정책을 연장하는 등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패널 단가는 하락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하반기 우리나라 IT제품의 수출 증가율은 상반기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큰 폭의 하

〈 원/달러, 달러/유로 환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락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영향

하반기 달러화 약세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 하락은 우리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8월초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연2.4%)이 발표되면서 더블딥에 대한 우려와 함께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었으나 최근 더블딥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다시 약세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유로화도 달러 대비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이탈리아 및 벨기에의 주요 수출국이 유로화 지역이기 때문에 유로화 강세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 원/달러 환율 하락도 실제 수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3~6개월 가량의 시차가 있으며, 변동성이 크지 않은 채 안정적으로 하락할 경우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 하락 기조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하반기 수출 실적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 결론 및 시사점

▶ 2010년 우리나라 수출 8강진입 전망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 수출순위는 11~15위권을 유지하였으나 2009년 금융위기시 9위를 차지하면서 마침내 수출 10강 대열에 진입하였다. 2009년에 수출순위가 3단계 상승한 요인으로는 우리 수출의 상대적 호조뿐 아니라 캐나다, 러시아 등 자원부국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10년 상반기 경기회복과 함께 우리 수출순위가 또 다시 상승하면서 우리 수출의 저력과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 2011년 이후 8강 유지는 어려운 전망

2011년 이후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 경기 회복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와 수출규모가 비슷한 국가들, 특히 유럽 국가들과의 각축이 예상된다. 특히 이탈리아의 주력 수출품목 중 경기에 민감한 고가의 명품 의류 및 신발류, 가구류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가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될 경우 수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 회복으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경우 대표적인 자원 수출국인 캐나다 및 러시아의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수출 8강 유지를 위한 다변화 노력 필요

현재 우리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 중국 수출은 양적인 팽창뿐 아니라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중국내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중국의 내수 소비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대중국 수출 증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내수시장 진출 전략을 강구해야 하겠다. 한편, 중국이외에도 과도한 대중국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개척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 소수 품목에 집중된 수출 구조 개선

캐나다와 러시아의 경우 자원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출 실적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수출도 비중이 높은 IT 제품이 경기 및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품목구조상 수출의 증감 폭이 클 가능성이 있다.